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훈계질이 싫다. 얇은 지식으로 깊이 아는 체를 하는 자를 경멸한다. 소음과 서커스, 거짓과 허언, 정치가의 웅변이 싫다.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이념들, 일체의 회의주의도 없는 종교, 영혼이 깃들 여지가 없는 과학, 자동차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 자를 싫어한다. 무능력한 가장, 함량 미달의 책들, 말없이 끊는 전화, 자기가 정의롭다고 외치는 자들, 낯색 변하지 않고 뻔뻔한 말을 늘어놓는 정치가들, 탐식하는 자를 싫어한다.

봄날 아침 숲속에서 들려오는 빠삭새 소리, 펄럭이는 웅변이 싫다. 4월의 잎사귀들, 막 떠오른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는 떡갈나무를 좋아한다. 라벤더꽃이 핀 들판, 빨래가 마르는 가을 오후를 좋아한다. 죄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에겐 살의마저 솟구친다. 끔찍한 인간들, 불친절을 증오한다. 혼자 개치불을 하는 소년, 11월의 마가목 열매, 여행 마지막 날의 쓸쓸함을 좋아한다. 그 여행지가 다시 올 수 없는 먼 곳일 때 애잔함은 더욱 짙어진다. 그늘에서 꽃을 피우는 현호색과 바위의 초록이끼를 좋아한다. 작고 어린 생명들, 어린 고양이, 호수

훈계질이 싫다- 어떤 약전(略傳)

를 가로지르는 물뿔, 작약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과 수제비를 좋아한다. 목포의 삼합, 평양냉면, 통영에 가서 먹은 붙날의 도다리숙과 과 여름철 민어회를 좋아한다.

여름 아침에 수렴꽃 만 것, 진공관 앰프로 들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의 한 소절, 잘 마른 면 셔츠를 입고 외출하기, 공중으로 도약하는 무용수,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 오후에 자는 듯이 죽은 개는 너무 슬퍼서 나를 화나게 한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어머니의 배추 된장국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이 좋아진다. 고요하고 적막한 식욕. 나는 곧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 하는 기대를 품는다.

당신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당신의 하얀 이마와 쇠골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음, 그 불가능마저 사랑한다. 무지개가 뜨지 않은 다정한 저녁들, 여름 저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밥바라기 별, 종일 내리는 눈의 아름다움, 북유럽의 백야,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는 심심한 개들, 주말에 하는 빗들과의 포커 게임을 좋아하는다. 포커 게임을 할 때 빗들은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이 되려고 했다. 그제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비열해졌다. 평생 내 안의 비열함을 괴로워했다. 스무 살 무렵 광화문 근처에 있던 고전음악 감상실 '르네상스'에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 무렵 시체의 '차라투

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만나고, 서정주의 시집을 읽었다. 청계천의 현 책방에서 김승옥의 첫 장작집 '서울, 1964년 겨울' 조판본을 구하고, 이제하의 첫 소설집 '초식'을 책방에서 샀다. 나는 시인이 될 것이다.

신춘문예 공모에 시가 당선됐다. 스물네 살이었다. 은행나무의 노란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 무렵 시립도서관 참고열람실에서 쓴 시다. 가을이 끝나자 은퇴한 늙은 직장인처럼 허전해졌다. 나는 강원 내륙으로 불속 여행을 떠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신문사에 보낸 신춘문예 당선 통지를 전보가 몇 통 와 있었다.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를 읽으려고 프랑스어 사전에 뒤적거리던 나는 출판사 편집 인력시장 쪽으로 빨려 들어가 교정과 교열 일을 배웠다. 백수 시절은 급격하게 끝났다. 나는 인력시장에 편입되어 착실하게 월급을 수령하는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네 절망을 말해 봐. 그러면 나의 절망도 말해 주지." (메리 올버버, '기러기')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네 절망을 말해 봐'라고 하지 못했다. 그 시절 내 안의 어린 동물은 어리고 착했다. 나는 무류으로 세상을 건널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류이 너털너털 해지는 걸 상상하는 게 끔찍했다. 태풍 직전의 고요를 사랑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던 내 안의 어린 동물은 죽었다. 나의 신념은 무너졌다. 세상이 기만하고 속일 때마다 나의 역시 세상을 속였다. 나는 손해 보고 싶지 않았다. 백수 시절보다 내 정신은 몰라졌다. 그래서 더 많이 타협하고 조금 더 비열해진 것이다.

종교칼럼

몽돌 두 개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짜 든다. 거제도 어느 해안가의 주차장 구석에는 낡은 안내판 하나가 외롭게 서있다. 거기엔 작은 몽돌 두 개, 실제 편지 사진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풀어 설명한 글이 적혀 있다. 미국에 사는 손녀가 할머니의 고향인 거제에 놀러 왔다가 몽돌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념으로 몽돌 두 개를 가져왔다. 그러나 할머니로부터 모진 꾸중을 듣고 주워 갔던 몽돌 두 개를 편지에 담아 거제의 할머니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내용이다.

아마도 훈훈한 미담을 알리고 싶었거나, 아니면 나름 교훈을 주려고 굳이 안내판으로 만든 모양이다. 그러나 안내판은 빛이 바래 낡고 웅성했다. 차라리 몽돌을 가져가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행정 편의성 안내만 하는 것이 나았을 법하다. 웬지 가르치려 드는 고압적인 자세가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알뜰한 상술로 비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아서 볼품없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건 또 무슨 심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특이하게도 그 해변은 펜션이나 카페같은 건물들이 해변과 맞닿아 있었다. 대부분 해안도로 너머로 해변이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저렇게까지 심하게 해변을 훼손하면서도 이런 안내문을 걸어 놓는 것 역시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해안대에서 가덕도까지의 해변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망가졌다기 보다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압도적 스케일의 부산 신항과 웅장한 광안대교 그리고 해운대의 하늘을 찌르는 스카이라인을 보며 탄성을 자아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한 소

녀의 반성과 할머니의 가르침을 접하며 '그래 그래야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두가지 가치관을 접하면서도 우리의 머리는 아무런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모두 수용한다.

이 모든 경험을 나는 자동차로 이동하며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공장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공장도 자연을 파괴한다. 당장 나를 편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준 자동차와 도로만 해도 그렇다. 매연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를 만들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연 파괴이다. 나 역시 지금 살면서 이 지구상 어디가의 해변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것이 확실하다. 내가 그러하듯 모든 인간은 자연 파괴에 책임이 있다. 인간 사회 자체가 자연의 파괴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달리 생각해 보면 부산 일대의 해변을 개발한 일군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생존과 안락한 삶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오히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손녀야말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일 수 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으로 겨우 몽돌 두 개를 돌려주기 위해 지출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미 지구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이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같은 처지이다. 우선은 살려놓고 볼 일이다.

'괴연 현대 문명이 선사하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부산항 일대의 모습과 거제의 한적한 해변 간의 괴리만큼 이 질문을 대하는 내 마음은 아득하기만 하다.

社說

규제 혁신 정부, 대불산단 전봇대 제거 속도내야

불합리한 규제를 상징하는 '영양 대불 산업단지 전봇대'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대불산단을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입주 기업들의 물류 수송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봇대 제거를 언급한 이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전봇대 뽑기'는 10년 남도록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 이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 이후 전남도와 영암군은 눈에 보이는 산단 내 대로변을 중심으로 29개 구간 255개의 전봇대를 제거했다. 하지만 구간의 안쪽 전봇대 180개는 그대로 방치해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산단인 대불산단 전봇대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 소요 예산 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정부의 반짝 관심이 사라지면서 2010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탓이다.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중화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 2008년 21억 원에 달했던 지중화 사업비는 2010년 5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행인 것은 전남도와 산업자원부 등이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대불산단을 주축으로 친환경 조성 및 해상중력 특화사업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현장을 찾아 대불산단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규제 개혁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말로만 규제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불산단이 조선 전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봇대 제거와 전선 지중화 등 물류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 이사회·학교 총동...지금 이럴 때인가

조선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둘러싸고 이사회와 학교 측이 정면충돌하면서 대학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은 일부 교수들의 일탈로 촉발됐다. 공과대학 A교수는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수시로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앞두고 있다. 또 미래사회융합대학 B교수는 지난해 국제 사업인 '평생교육체계 지원'과 관련한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나

태했다. 이사회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해당 단과대학장 등의 감독 책임 등을 들어 민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상신 등 교원 임용 제정

그러자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학장 등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권한 침해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27일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그

중에 기획조정실장·입학처장 등 여섯 명이 총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대학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 최초의 민립 대학이자 초·중·고대 사학인 조선대는 1988년 이후 극심한 학내

無等鼓

일본 원자규제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함에 따라 인접국으로서 방사능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원자폭탄의 방사능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국가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무려 77년이 지났지만 그 피해와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피해는 한국과 중국 해역에 수십 년 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피해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일본 원자규제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함에 따라 인접국으로서 방사능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 원자규제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함에 따라 인접국으로서 방사능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국문 신형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광주 자치구 간 경제 조정을 위한 담대한 용기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23.46%) 등이다. 공무원 1인당 감당하는 주민 수를 따져 보면 동구가 140명, 서구 291명, 남구 246명, 북구 335명, 광산구는 339명이다.

특히 인구 수대로 배정되는 예산의 경우 다섯 개 구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자치구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평균 인구수를 보면 북구와 광산구가 훨씬 많아서 부담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구는 사업비로 쓸 돈이 적고, 북구와 광산구는 일할 사람이 적고 사업비로 쓸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광주 지역 5개 구의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균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잇그제 회의에서도 자치구간 균형 발전과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 경제 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어느 구는 좋고, 어느 구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구를 바꾸라고 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도 몇 달 지나고 보면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 A구에서 B구로 바뀐 것일 뿐이지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구정장, 시의원 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다. 자치구간 경제 조정에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광주시장 밖에 없다. 모든 정치인의 합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연구 용역팀과 다시 협의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을 둘러싼 논란의 결론을 도출했던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용역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로 최종안을 만들어서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시민들도 당장 구가 바뀌는 불편함이 있지만, 광주는 모두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큰 틀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자치구 변경안을 받아들이는 담대한 용기가 역시 필요하다.

경제 조정 논의는 2024년 총선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면 금년 말 안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은 시장의 중요 목표로 속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치구간 경제 조정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속도전은 강기정 시장의 속도 행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합리적인 민주당도 시민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